

패션 전설 조르지오 아르마니 별세

독창적 실루엣 디자인, 여성 전문성 발현 '파워 슈트' 유명

이탈리아 전설적인 패션 디자이너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9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고 아르마니 그룹이 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아르마니 그룹은 성명을 통해 "무한한 슬픔 속에 창조자이자 창립자이며, 불굴의 추진력이었던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별세를 알린다"고 밝혔다. 이어 "아르마니는 사랑하는 이들 곁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회사를 위해 헌신했으며, 컬렉션과 진행 중이던 다양한 프로젝트에 전념했다"고 덧붙였다.

아르마니는 한동안 건강이 좋지 않았으며, 지난 6월 밀라노 남성 패션위크에 불참한 것은 그의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런웨이 무대를 놓친 사례였다. 그가 마지막으로 공개 석상에 참석한 것은 5월 21일이었다.

이탈리아 디자이너 도나텔라 베르사체는 인스타그램에 아르마니의 사진을 게시하며 "오늘 세계는 거인을 잃었다"고 애도했다.

'레 조르지오(Re Giorgio·왕 조르지오)'라는 별칭으로 불린 그는 1975년 자신의 이름을 딴 회사를 설립했으며, 이 브랜드는 곧 "패션에서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된 절제된 세련미"의 대명사가 됐다.

아르마니의 세계적 전환점은 1980년 영화 '아메리칸 지골로'에서 리처드 기어가 입은 슈트를 디자인하면서 찾아왔다. 이를 계기로 아르마니는 오프 쿠튀르에서 대중 패션, 안경, 신발, 심지어 가구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 제국을 일궈냈다.

그의 첫 레드카펫 의상은 1978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다이앤 키튼이 입은 블레이저와 스커트였다. 키튼은 그해 '애니 홀'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으며, 아르마니는 훗날 2020년 인터뷰에서 "키튼은 무엇보다 먼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했고, 그 다음이 스타였다"고 회상했다.



▲ 이탈리아 패션 디자이너 조르지오 아르마니. 사진=AFP연합뉴스

그는 당시를 돌아보며 "1978년은 사회적으로나 직업적으로 모두가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던 시기였고, 특히 여성들은 전문가로서 새로운 목소리를 발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르마니는 자신이 여성들에게 남성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옷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1970~80년대 여성용 파워 슈트가 대중문화를 장악하던 시절, 아르마니는 그 흐름의 중심에 있었다.

아르마니의 바지와 안감 없는 재킷은 독창적인 실루엣을 만들어내며 이탈리아 기성복을 세계 무대에 올려놓았다. 그의 패션 하우스는 슈트로 명성을 얻었지만, 드레스 또한 우아함과 실루엣을 강조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르마니의 사업은 의류를 넘어 화장품, 향수, 가구, 액세서리 등으로 확장됐다. 포브스는 그의 순자산을 121억 달러로 추산하며 세계 억만장자 순위 235위에 올려놓았다. 포브스 프로필에서 그는 "나는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완벽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집착적인 성향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가

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다.

패션 전문잡지 보그의 안나 윈투어 전 편집장은 성명에서 아르마니를 "분명한 개성과 독창적인 비전을 가진 인물"로 평가하며 "그는 권위와 태도, 우아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으며, 특히 여성들이 옷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려 했던 시대에 그 메시지를 정확히 읽어냈다"고 말했다. 또한 그가 패션을 특정 영역에 국한하지 않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그에게 패션은 영화, 음악, 스포츠, 예술, 건축이었고, 이 모든 분야에 흔적을 남겼다"고 강조했다.

배우 러셀 크로 역시 SNS에서 추모 글을 남기며, 이달 말 밀라노에서 아르마니와 만나기로 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1997년 칸 영화제에 가는 길에 짐이 분실돼 급히 아르마니 매장을 찾은 뒤 처음 슈트를 입게 됐고, 이후 결혼식을 포함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아르마니 의상을 입었다고 회상했다. 크로는 "아르마니는 패션, 디자인, 대중문화에 깊은 공헌을 했다. 그의 에너지, 비전, 섬세함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나는 그를 존경했고, 그는 매우 친절한 사람이었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조르지오 멜로니 총리는 성명을 통해 아르마니의 "우아함, 절제, 창의성"을 기리며 "그는 이탈리아 패션에 빛을 더하고 전 세계에 영감을 준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상징이자 지치지 않는 노동자, 이탈리아 최고의 상징이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르마니의 고향 밀라노 출신인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는 "그는 전 세계가 존경하고 감탄한 이탈리아의 우수성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며 "스타일과 창의성의 무적의 거장이었다"고 애도했다.

장례식은 고인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러지지만, 밀라노 본사 쇼룸이자 무대인 '테아트로 아르마니'에서 일반인의 조문을 받는다.

웰컴치과그룹

B B B 만을 고집하는 웰컴치과

Best Price Best Quality Best Service

가격이면 **가격!** 품질이면 **품질!**
 실력이면 **실력!** 모두 자신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웰컴치과는 **친절합니다.**
 명문대 출신 실력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친절히 치료해 드립니다.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보험을 받고있습니다
PPO 및 각종보험 환영

- 메디칼
- 앤섬블루크로스
- 휴메나 골드플러스
- 유나이드 헬스케어 (AARP Medicare Advantage)
- 클레버케어
- astiva health
- PPO Insurance

• 이주영(JustinLee)DDS

• 로마린다 치대 졸업

애나하임 714.552.5373

한인타운 213.381.2827

1201 N. Euclid St.
 Anaheim, CA 92801

2500 W. 8th St. #106
 LA, CA 90057